

원자력에 대한 주요인식 조사결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제공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96년 10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603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개발조사연구소가 담당하였으며 표본 인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지역과 지역의 크기에 따라 가구수에 비례한 다단계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는 +2.5%의 표본오차(95% 신뢰수준)를 가지며 실제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에 대한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85.5%('95년)~85.8%('96년)인 대다수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응답자의 계층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데, 남자, 고학력층, 자영업, 화이트칼라층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반응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증가시킬 것인가 혹은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이를 '적극

적으로' 또는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66.4%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10.5%포인트 높아졌으

며, 이러한 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거나(21.5%) 감소/중지해야 한다(5.5%)는 견해보다 훨씬 우세하였다(그림 2 참조).

'95년도에는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과 교량이 붕괴되어 많은 사상자를 내는가 하면 대규모의 가스폭발 등이 발생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은 각종 시설과 기술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그 어느 때보다 크

게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다소 막연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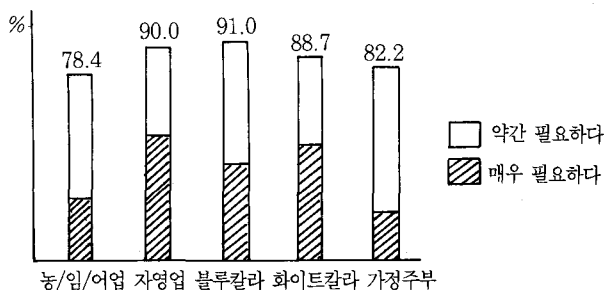
원자력발전소의 증감 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에 있어

서도 이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이러한 현상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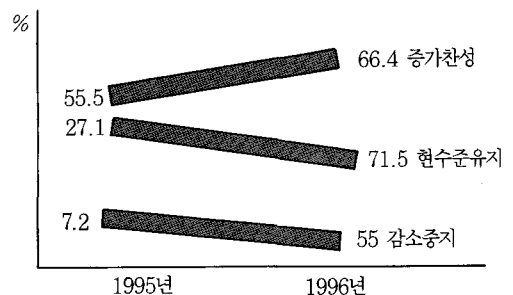
지역경제 혜택시 거주지내 원전건설 찬성

NIMBY현상 다소 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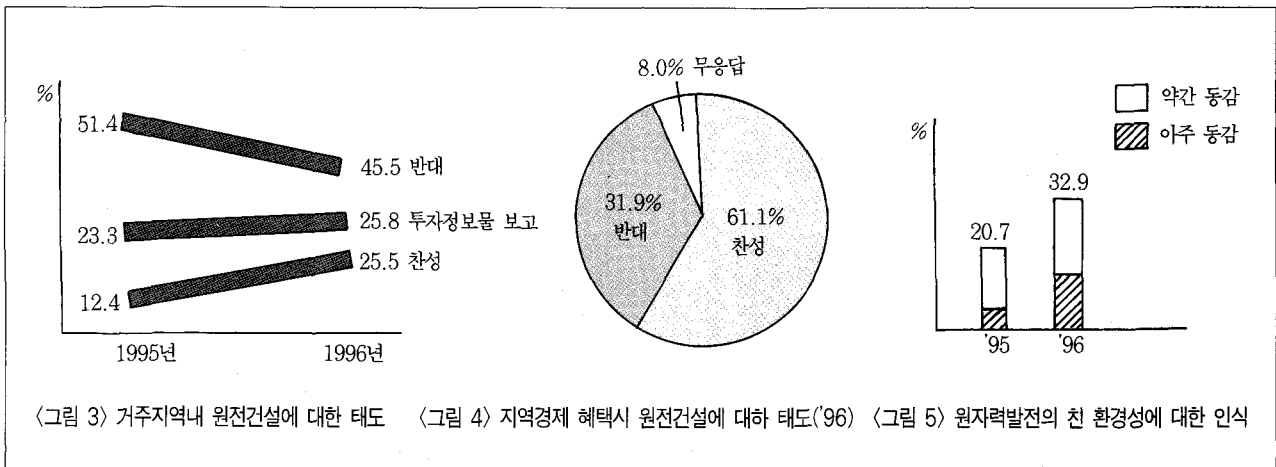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이나 증설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



〈그림 1〉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직업별 인식



〈그림 2〉 원전의 증설에 대한 견해



〈그림 3〉 거주지역내 원전건설에 대한 태도 〈그림 4〉 지역경제 혜택시 원전건설에 대한 태도('96) 〈그림 5〉 원자력발전의 친 환경성에 대한 인식

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거주지역내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높다. 그러나 '95년도에 61.4%가 이를 반대하였던 것이 '96년도에는 44.6%로 16.8%포인트 낮아지고, 찬성하는 비율은 '95년도에 12.4%에서 '96년도는 25.5%로 높아져 이른바 님비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지역경제 혜택시 찬성

거주지역내 원전건설에 대한 반응은 만일 원전으로 인해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양상이 크게 바뀐다. 즉, 지역경제에 대한 혜택을 고려한다면 거주지역내 원전건설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61.1%로 나타나 반대의견 31.9%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찬성비율도 지난 '95년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경제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재정의 확보방안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그 지

역의 경제와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의와 지원을 구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95년과 '96년에 조사된 결과는 긍정적 인식이 각기 30.5%와 30.9%이며 부정적 인식은 49.5%('95년)~55.5%('96년)이었다. 그러나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44.1%로 부정적 인식 비율 45.9%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다만 여성, 특히 가정주부층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에게서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이 결성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여성들이 원자력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단지 감성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기 일쑤였다고 한다면 이 여성모임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이해를 저변으로 확대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친 환경성에 대한 인식 고조

원자력발전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사실에 동감하는 비율은 '95년 20.7%에서 '96년 32.9%로 높아져 원자력의 친 환경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1년 사이에 크게 높아졌다.

원자력발전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에 있어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긍정적 시각(40.2%)과 부정적 시각(42.5%)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화이트칼라층에서는 긍정적 시각(45.0%)이 부정적 시각(39.4%)보다 더욱 우세하였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구환경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그린라운드로 지칭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러한 관계를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홍보해왔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성과가 원자력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참조). ■